

- 제 목: 제55차 이사회
- 일 시: 2019.02.27(수)18:00
- 장 소: 대경한정식

## 회 의 록



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

## 제55차 이사회 회의록

■ 회의소집 통지일 : 2019. 02. 15(금)

■ 일 시 : 2019. 02. 27(수) 18:00~19:40

■ 장 소 :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12길 12(대경한정식)

■ 재적이사 총 7명 중 5명 참석, 감사 1명 참석

- 이 사 : 김상근, 김덕진, 김성수, 박태영, 민충기

- 감 사 : 강기표

- 배석인원 : 박임순, 서금지, 김길동, 김정호

■ 안 건

- 제1호 안건 : 법인 및 산하시설 2018년 사업실적 및 세입·세출결산(안)

- 제2호 안건 : 법인 및 산하시설 2019년 변경사업계획 및 1차 추가경정예산(안)

- 제3호 안건 : 법인임원(외부이사, 감사) 선임(안)

■ 회의내용

### 1. 성원보고

김길동 국장이 재적이사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김상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다

### 2. 개회

김상근 대표이사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18:00시 수경복지재단 제55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.

### 3. 대표이사 인사

김상근 대표이사가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다. 올해에도 법인 및 산하시설들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맡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, 2018년도 결산과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법인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니 법인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며 인사에 갈음하다.

### 4. 전차회의록 처리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 처리를 상정하고, 김길동 국장에게 회의록을 보고하게 하다.
- 김길동 국장이 전차회의록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하다.
- 김성수 이사가 전차회의록 검토 후 이의 없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
- 김덕진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전자회의록 처리에 관해 이의 없음을 묻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.

#### 5. 감사보고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강기표 감사에게 '2018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의 사업 및 세입·세출 결산'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부탁하다.
- 강기표 감사가 감사보고서에 의거하여 감사결과를 낭독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이사님들께 감사보고에 따른 질문이 없음을 묻다.
- 박태영 이사가 법인 및 산하시설 등 감사 자료가 많았을 텐데 두 분 감사님이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하며, 감사보고서를 살펴 본 바 감사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잘 해주신 것 같으며 이의 없음을 말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이사님들께 감사보고에 대한 질문여부를 묻고, 질문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보고를 마치다.

#### 5. 부의안 심의

##### □ 제1호 의안 : 법인 및 산하시설 2018년 사업실적 및 세입·세출결산(안)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1호 의안인 '법인 및 산하시설 2018년 사업실적 및 세입·세출결산(안)'을 상정하고 법인국장 및 각 시설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.
- 법인국장 및 각 시설장이 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'법인 및 산하시설별 2018년 사업실적 및 세입·세출결산(안)'에 대해 설명 드리다.
- 김성수 이사가 수경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세입과 세출영역 모두 예산대비 결산액의 비율이 타 시설에 비해 많이 낮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다.
- 서금지 소장이 수경방문요양센터가 2018년 상반기에 개소한 이후 이용대상 어르신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으로, 당초 목표에 비해 이용실적이 낮아 예산보다 저조한 결산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2019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 드리다.
- 민충기 이사가 회의 자료를 통해 사업 및 결산부분을 살펴보니 극히 일부 영역에서 세입이 미달되거나 사업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사업 및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다.
- 김덕진 이사가 일부 부족한 부분은 추가정정예산 편성시 신중하게 고려하여 편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, 법인 및 산하시설의 사업 및 결산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박태영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, 이의 없으면 '예'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



전원이 “예”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.

□ 제2호 의안 : 법인 및 산하시설 2019년 변경사업계획 및 1차 추가경정예산(안)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2호 의안인 ‘법인 및 산하시설 2019년 변경사업계획 및 1차 추가경정예산(안)’을 상정하고 김길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.
- 김길동 국장이 2019년도 보조금 예산의 확정과 전년도 이월금의 세입편성 및 수경기억 학교 차량구입 등의 사유로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수경기억학교 차량구입 예산을 법인전입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편성하면서 법인과 수경기억학교의 추가경정예산액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을 추가로 설명 하다.
- 민충기 이사가 법인이나 타 산하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의 확정과 전년도 이월금의 세입편성으로 인한 변동이 대부분인데, 비슬원의 경우 잡수입 예산의 증액 폭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다.
- 박임순 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지원하는 ‘일자리 안정자금’ 지원 대상에 올해부터 요양보호사가 신규로 포함되어 해당 지원금을 잡수입 항목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다.
- 김덕진 이사가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시설장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, 변경된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다.
- 박태영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, 이의 없으면 ‘예’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“예”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.

□ 제3호 의안 : 법인임원(외부이사, 감사) 선임(안)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제3호 의안인 ‘법인임원(외부이사, 감사) 선임(안)’을 상정하고 김길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.
- 김길동 국장이 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법인임원 가운데 2019년 4월 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외부이사 두 분(민충기, 손정일)과 2019년 6월 16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(강기표)의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 드리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법인의 외부이사로 수고해 주신 두 분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외부이사 추천을 요청하여, 차기에도 우리 법인의 이사로 활동해 주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민충기 이사를 비롯하여 선임대상인 두 명의 3배수인 여섯 분의 후보를 추천받았음을 설명하다.
- 박태영 이사가 노인복지 현장경험이 있고 우리 법인의 특성과 운영방향을 잘 이해하고

계시는 민충기 이사님이 차기에도 외부이사로 활동해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한 일이며, 임기만료를 앞둔 강기표 감사님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감사직을 계속 수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.

- 김성수 이사가 외부추천이사 후보인 김성택 사무국장님은 다양한 영역의 현장경험과 아울러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어, 우리 법인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되어 외부이사로 모시면 좋겠다고 말한다.
- 김덕진 이사가 민충기 이사님과 김성택 사무국장님 모두 우리 법인의 외부이사로 적절할 것 같고, 강기표 감사님도 법인의 발전을 위해 차기에도 수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하며 박태영 이사와 김성수 이사의 의견에 동의한다.
- 박태영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, 이의 없으면 '예'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"예"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.

#### □ 기타 안건

- 김상근 대표이사가 기타 안건이 없는가를 묻고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다.

#### 6. 폐회

- 김덕진 이사가 폐회하기를 동의하고, 박태영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폐회에 이의 없음을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19:40에 폐회를 선언하다.

이상과 같이 제55차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2.



##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

대표이사 김상근



이 사 김덕진



이 사 김성수



이 사 민충기



이 사 박태영

